

기술분석보고서 IT

에이치와이티씨(14893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와이티씨(148930)

2차전지 공정의 수율과 품질을 좌우하는 초정밀 주요 부품 기술 기업

기업정보(2026.03.18 기준)

대표자	김욱현
설립일자	2005년 12월 21일
상장일자	2022년 8월 9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주요제품	2차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의 부품 (KNIFE UNIT, 노칭 금형 등)

시세정보(2026.03.18 기준)

현재가(원)	2,85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91
발행주식수	10,175,213주
52주 최고가(원)	4,780
52주 최저가(원)	2,670
외국인지분율	1.19%
주요주주	(주)태광 외 3인

■ 2차전지 제조 공정 전반에 대응 가능한 주요 부품 공급 기업

동사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터리 장비 분야에서 고객사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급업체로 평가된다. 고객 맞춤형 수주 생산 구조와 글로벌 생산·영업 거점을 기반으로 배터리 제조사의 설비 투자 및 생산 확대에 연동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조립공정 부품을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방 산업 투자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나, 교체 수요 기반의 반복 매출이 가능하며, 전방 투자 회복, 금형 비중 확대, 글로벌 대응력 강화 여부에 따라 중장기 성장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 공정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이 성장을 좌우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으로 전환 중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은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에 연동되는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전기차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투자 조정 영향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설비 증설 중심에서 공정 고도화와 품질 개선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경쟁력과 공정 대응력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북미 현지화와 금형 중심 고부가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주력과 신사업의 확대 시도

동사는 북미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현지 수요에 대응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칭 금형 등 고부가가치 사업 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342.2	-4.3	19.8	5.8	19.7	5.7	5.5	3.8	22.5	227	5,458	40.1	1.7
2023	406.3	18.8	35.7	8.8	56.0	13.8	9.7	8.1	19.0	554	6,017	12.2	1.1
2024	323.2	-20.4	4.2	1.3	26.1	8.1	4.3	3.6	17.1	256	6,312	13.9	0.6

기업경쟁력

고객 맞춤형 설계와 소모품 기반 사업 구조

- 고객사 설비 및 배터리 규격에 맞춰 설계되는 수주형 구조를 가지며,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사와의 장기 거래 관계 및 높은 전환 비용이 형성

고부가가치 금형 확대와 글로벌 현지화 전략

-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며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북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영업 거점 구축을 통해 고객사 해외 생산 확대에 직접 대응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미세 공차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

-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가공하는 기술로, 노칭 금형 등에 적용되며 배터리 수율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 기술

고객 맞춤형 설계 역량

- 고객사 설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공정에 국한되지 않는 대응력을 확보하여 통합적인 기술 대응 가능

특허 기반 공정 기술

- 노칭 금형 및 절단 공정, 초음파 공정, 금형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설계·구조 개선 및 공정 안정성 향상 기술 축적



시장경쟁력

2차전지 설비 투자 및 공정 고도화 동시 수혜 구조

- 초기 장착 수요와 교체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로 배터리 산업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 가능

글로벌 배터리 고객 기반 및 북미 현지 대응력

- 북미를 포함한 주요 고객의 해외 생산 확대에 맞춰 현지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납기 대응력과 기술 지원 능력을 강화

공정 핵심 부품 중심의 기술 진입장벽 확보

- 장기간 축적된 가공 기술, 고객 맞춤형 대응 구조는 신규 진입자의 모방을 어렵게 하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진입장벽을 형성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초정밀 부품을 통해 배터리 수율과 품질을 개선하며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희소성(Rarity)

- 공정 전반 대응이 가능한 초정밀 부품·금형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희소성을 가진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정밀 가공 노하우, 고객 맞춤 설계, 특허 축적이 결합되어 단기간에 모방하기는 쉽지 않다.



조직(Organization)

- 글로벌 거점과 수주형 생산, R&D 체계를 통해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2차전지 제조 공정 전반에 대응 가능한 핵심 부품 공급 기업

동사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터리 장비 분야에서 고객사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급업체로 평가된다. 고객 맞춤형 수주 생산 구조와 글로벌 생산·영업 거점을 기반으로 배터리 제조사의 설비 투자 및 생산 확대에 연동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조립공정 부품을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방 산업 투자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나, 교체 수요 기반의 반복 매출이 가능하며, 전방 투자 회복, 금형 비중 확대, 글로벌 대응력 강화 여부에 따라 중장기 성장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00년 6월 한영정공으로 설립된 후, 2005년 12월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본사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터리 제조사 및 장비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B2B 중간재 산업에 속한다.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극판공정 일부와 조립공정 대부분에서 활용되는 커터(Cutter), 초음파 혼 및 ANVIL 등 장비 부품을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적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2차전지 제조 장비 분야에서 주요 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며, 고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내에서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 구조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주형 생산 방식이 특징이다. 표준화된 대량 생산이 아닌 고객의 요구 사양에 따라 맞춤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 및 실적의 변동성이 존재하며, 고객사의 설비 투자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한편,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가 추진하는 해외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지역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영업 및 생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사와의 긴밀한 기술 협력과 납기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시점	주요 연혁
2000.06	한영정공 설립
2005.12	(주)에이치와이티씨로 법인 전환
2019.09	중국 남경법인 설립 및 가동
2020.02	폴란드 법인 설립 및 가동
2020.03	국가 뿌리 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인증
2021.01	(주)태광그룹으로 편입
2022.04	미국 오하이오 법인 설립 및 가동
2022.08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4.02	노칭 금형 사업 개시: HLI(현대-LG) 인도네시아
2024.10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미국합작법인 노칭 금형/커터 수주
2025.02	미국 조지아 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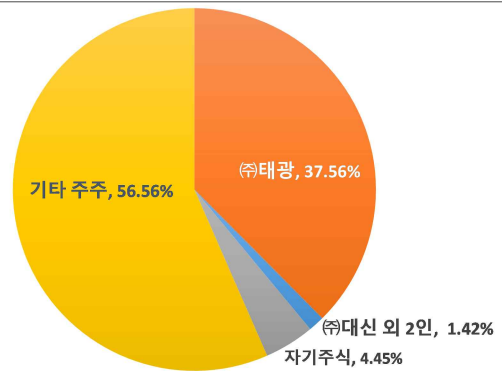
자료: 동사 IR자료(2026.03),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주 현황

2025년 11월 공시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동사를 종속회사로 포함하고 있는 (주)태광으로, 전체 발행주식(10,175,213주) 중 3,821,97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37.5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대신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144,860주(1.42%)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453,153주(4.45%)의 자기주식 보유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5,755,228주(56.56%)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약 38.98%로, 최대주주 중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주)태광	3,821,972	37.56%	최대주주
(주)대신 외 2인	144,860	1.42%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453,153	4.45%	
기타 주주	5,755,228	56.56%	
합계	10,175,213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영역은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초정밀 부품을 중심으로 총 4개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2차전지 장비용 초정밀 부품 중 조립공정 부품류는 커터, 권심, 초음파 혼, ANVIL 등 배터리 셀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포함하고, 2024년 기준 48.6%로 전체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다. 둘째, 2차전지 장비용 초정밀 부품 중 2차전지 및 반도체용 기타는 배터리 및 일부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기타 정밀 부품군으로 구성되고,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 중 18.6%를 차지하였다. 셋째, 2차전지 장비용 금형은 노칭 금형, 절연판 금형 등 고정밀 금형 제품으로, 최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형류는 2024년 기준 6.4%의 매출 비중을 기록했고,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10.7%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넷째, 기타 제품은 특정 공정에 한정되지 않은 기타 제품군으로, 고객 맞춤형 부품 및 부가 매출이 포함되고, 2024년 기준 26.4%로 전체 매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제품



커터



초음파 혼 & ANVIL



정밀 부품



노칭 금형



자료: 동사 IR자료(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동사의 제품은 배터리 제조 설비의 증설에 따른 초기 공급뿐 아니라, 공정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신규 설비 도입에 따른 수요와 부품 교체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표 3] 동사의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22년	비중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조립공정 부품류	140.7	41.1%	180.2	44.3%	157.2	48.6%
2차전지 및 반도체용 기타	87.0	25.4%	95.9	23.6%	60.1	18.6%
금형류	16.5	4.8%	12.5	3.1%	20.8	6.4%
기타 제품	98.0	28.7%	117.7	29.0%	85.1	26.4%
합계	342.2	100.0%	406.3	100.0%	323.2	100.0%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조립공정 부품류	140.7	180.2	157.2
2차전지 및 반도체용 기타	87.0	95.9	60.1
금형류	16.5	12.5	20.8
기타 제품	98.0	117.7	85.1
합계	342.2	406.3	323.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조직은 주요 고객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 on)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업체 대상 영업을 병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각 영업 조직은 고객사별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단순 영업 활동을 넘어 기술 협의, 견적 대응, 납품 및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영업은 고객사와의 기술 미팅, 제품 납품 및 재연마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계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해외 영업은 중국,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본사와 협업하여 동일한 수준의 영업 및 기술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판매 방식은 고객 발주에 기반한 직매출 구조로, 모든 제품은 선 발주 후 생산되는 수주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제품은 고객 요구 사양에 맞춰 설계 및 제작되며, 출고 전 정밀 검사를 거쳐 고객사에 직접 납품된다. 이러한 구조는 고객 맞춤형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해외 고객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을 활용한 직접 납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판매전략 측면에서 동사는 고객 맞춤형 설계 대응과 고품질 가공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영업 인력은 정밀부품 제조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설계 도면을 이해하고 기술적 협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고정밀 가공 설비와 공정 내재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고객사의 해외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고객 밀착형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거래 관계 유지 및 추가 수주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공정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이 성장을 좌우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으로 전환 중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은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에 연동되는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전기차와 ESS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투자 조정 영향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설비 증설 중심에서 공정 고도화와 품질 개선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경쟁력과 공정 대응력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의 특성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은 배터리 셀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설비 시장으로, 통상 전극공정(믹싱·코팅·캘린더링·슬리팅), 조립공정(스태킹·와인딩·탭용접·패키징),化成·검사공정(포메이션·에이징·테스트), 그리고 모듈·팩 조립 장비로 나뉜다.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범용 설비가 아니라, 배터리 화학계(NCM(니켈·코발트·망간)·LFP(리튬인산철) 등), 폼팩터(과우치·각형·원통형), 고객사 수출 목표에 따라 요구 사양이 달라지는 고정밀·고객맞춤형 설비 시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장비 업체의 경쟁력은 생산속도보다도 정밀도, 수율, 불량률 관리, 자동화 수준, 유지보수 대응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특성은 장비 수요가 최종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의 생산능력 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제조능력은 2024년 3.3TWh 수준에서 2030년 약 6.5TWh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최대 9TWh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장비 시장은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지만, 개별 연도의 수주와 매출은 고객사의 증설 시점, 가동률,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전형적인 투자사이클 산업이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비중이 매우 높고, 북미와 유럽이 정책 기반으로 빠르게 추격하는 구조다. IEA는 2024년 기준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제조능력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으며, 동시에 미국은 생산자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제조능력이 빠르게 확대됐다고 설명한다. 이는 장비 시장이 단순히 “배터리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현지화 정책이 강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신규 증설 수요와 라인 업그레이드 수요가 함께 존재한다. 배터리 기술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라인도 화학계 전환, 검사 정밀도 향상, 자동화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개조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비 시장은 “배터리 수요 증가 = 신규 라인 발주”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기술 전환에 따른 재투자 수요까지 포함하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성장 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이 드러난다. IEA는 2024년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1TWh에 근접했고,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만 약 950GWh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삼성SDI는 2025년 실적 발표에서 단기적으로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은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종료 및 연비·배출 규제 체계에 대한 조정, 중국 전기차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다고 밝혔다. 즉, 장비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지만, 2024~2025년 구간에서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투자 집행 속도가 조정되는 국면이 병행되고 있다.

2차전지 제조 장비 수요의 무게중심이 단순 전기차 증설에서 ESS와 북미 현지화로 확장되고 있다. IEA는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뿐 아니라 전력망 저장과 같은 에너지 저장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 북미 ESS 중심 대응과 생산역량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장비 시장에서 전기차 전용 라인뿐 아니라 ESS용 셀과 시스템에 최적화된 설비, 그리고 북미 현지 생산라인용 장비 수요가 중요한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편, 중국의 높은 생산기반과 가격 경쟁력은 장비 시장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다. IEA는 중국이 2024년에도 글로벌 배터리 제조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LFP 확대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지역 공급망 육성과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장비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격경쟁과 서구권의 현지화 수요라는 두 축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범용 장비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고속·고수율·고정밀 장비, 자동화 소프트웨어, 검사 솔루션, 현지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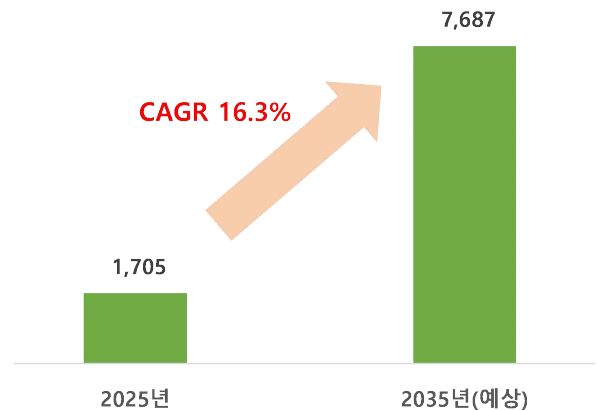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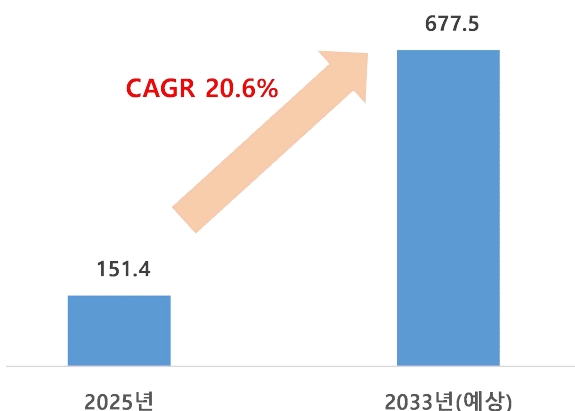
기술 트렌드 측면에서는 LFP 확대, 46시리즈 원통형, 차세대 조립공정, 포메이션·검사 고도화가 핵심이다. Grand View Research는 배터리 제조 장비 시장에서 코팅·건조와 조립 장비뿐 아니라 포메이션·테스트 장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배터리 제조 장비 시장이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율 개선”과 “검사 고도화”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동사의 성장성은 단순히 배터리 제조설비 증설 규모에 연동되기보다는, 조립공정 및 극판공정 내에서 요구되는 정밀도 수준 상승과 공정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형 및 고부가 부품 비중 확대, 글로벌 고객사의 신규 공정 적용 대응 능력 확보, 그리고 검사·정밀 가공 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 여부가 목표시장에서 동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은 2025년 151.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3년에는 67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의 경우에는 2025년 1,70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6.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5년 7,68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2차전지 제조 장비 및 2차전지 시장은 공히 두 자릿수 고성장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뿐 아니라 ESS 등 에너지 분야로 수요 확대, 북미·유럽 현지화, 화학계 및 폼팩터 다변화, 검사·자동화 고도화에 힘입어 높은 성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2] 글로벌 2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3] 글로벌 2차전지 시장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자료: Grand View Research, Precedence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초정밀 가공·특허 기반 기술과 공정 대응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제조 전반에 침투

동사는 2차전지 제조 공정용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세 공차 수준의 정밀 가공 기술과 고객 맞춤형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극판·조립공정 전반에 대응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노칭 금형, 절단 및 초음파 공정 등에서 축적된 특허 기반 기술은 수율 개선과 품질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며, 공정 최적화 역량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고객사와의 협업 중심 R&D와 차세대 배터리 공정 대응 기술 개발을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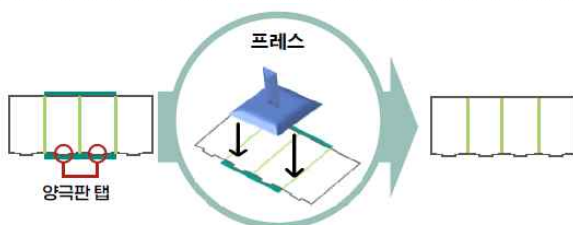
동사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에 적용되는 초정밀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세 공차 수준의 정밀 가공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은 수 마이크로미터($1/1,000\text{mm}$)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며, 공차 관리 능력과 가공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품질 확보가 어렵다. 특히 전극 절단 및 노칭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불량은 곧바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축적된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신규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동사의 정밀 가공 역량은 고객사의 수율 및 품질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요소이다.

극판공정부터 조립공정까지 KNIFE UNIT, PX-SHAFT, 커터, 권심, 초음파 혼 및 ANVIL, 노칭 금형 등 다양한 핵심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특정 공정에 국한되지 않는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사 설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가 수주 및 확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공정 간 연계된 기술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경쟁사 대비 통합적인 기술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표준화된 범용 부품이 아니라 고객사 장비 및 배터리 규격에 따라 맞춤형 설계와 정밀 가공이 요구되며,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한 설계 대응 능력과 공정 이해도, 고난도 가공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고객 공정에 깊이 연계되는 형태로 발전하며, 장기적인 거래 관계와 함께 높은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초정밀 가공 기술, 맞춤형 설계 역량, 특허 기반 공정 기술,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과 고객 락인(lock-in) 구조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그림 4] 동사의 노칭 금형 기술



양극, 음극판의 탭 형상을 타발하여
각각의 극판 형태로 만드는 프레스 방식 금형

노칭금형 관련 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제품개발에 매진



자료: 동사 IR자료(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활동

동사는 고객사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개발과 자체 기술 고도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 조건에 최적화된 부품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공정 효율 개선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2차전지 시장은 LFP 확대,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채택, 공정 자동화 및 검사 고도화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 공정 역시 대형화·고속화·정밀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여 동사는 원통형 배터리(46시리즈 등) 대응 기술, 고속·고정밀 가공 기술, 초음파 공정 기술 고도화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설비 증설 수혜를 넘어 공정 변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R&D 방향은 배터리 제조사의 수율 개선 및 품질 고도화 요구에 부합하며, 향후 신규 공정 확대 및 글로벌 고객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는 외부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특정 기술 영역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기반 사전 검증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개발 효율성과 기술 완성도를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체계는 단순 제품 개선을 넘어 공정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림 5] 자동차용 배터리 셀 유형의 장단점

각형	46 형 원통형	파우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이 높음 • 대량 생산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공정 용이 • 안정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밀도 높음 • 사이즈 변경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 생산비용 고가 • 형태변경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에너지 밀도 (테슬라, 파나소닉, L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 저하 • 생산비용 고가

자료: 동사 IR자료(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지식재산권 및 기술 보호

동사는 2차전지 공정 핵심 부품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노칭 금형 및 절단 공정, 초음파 공정, 금형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고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설계·구조 개선 및 공정 안정성 향상 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 내용은 단순 구조 설계 수준을 넘어, 노칭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제어 및 불량 방지, 박판 소재 가공 시 발생하는 결립 및 손상 문제 해결, 전극 절단 정밀도 및 생산성 향상, 초음파 진동 제어 및 접합 품질 개선, 다단 금형을 활용한 성형 공정 고도화 등 배터리 제조 공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정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기술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동사는 품질·환경·안전 관련 국제 인증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등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특허 확보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PEST 분석

2차전지 산업은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전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당사는 이러한 정책 수혜 구조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유럽의 배터리 규제 및 보조금 정책 등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이는 당사의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정책 변화나 보조금 축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단기 실적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사의 실적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성장과 배터리 제조사의 설비 투자에 크게 연동된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및 투자 조정 국면에서는 매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전동화 추세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사의 제품이 소모품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설비 증설뿐 아니라 교체 수요 기반의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경기 변동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실적 방어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품질, 안전성, 수율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고정밀 부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안정성을 지원하는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글로벌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거점 구축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2차전지 산업은 LFP 확대,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정 자동화 및 검사 고도화 등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 공정 역시 고속화·정밀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당사는 초정밀 가공 기술, 노칭 및 절단 공정 관련 특허, 초음파 공정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공정 최적화 역량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공정 변화에 따른 부품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R&D 역량은 향후 신규 공정 대응 및 글로벌 고객 확대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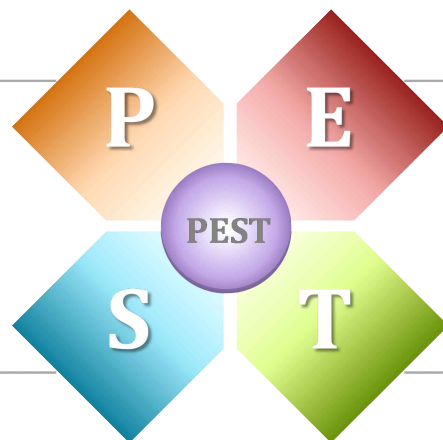
[그림 6]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수혜 구조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
- 정책 변화에 따른 설비 투자 변동 리스크

➤ Social (사회)

-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
- 배터리 품질-안전성 요구 수준 상승
- 글로벌 생산 확대에 따른 현지 대응 중요성 증가



➤ Economic (경제)

- 배터리 투자 사이클에 따른 실적 변동성
- 전기차-ESS 성장에 따른 중장기 수요 확대
- 소모품 구조 기반 반복 매출로 일부 방어력 확보

➤ Technological (기술)

- 46시리즈-LFP 등 기술 변화 가속
- 공정 고도화(수율-검사 중심) 트렌드 강화
- 초정밀 가공-특허 기반 기술로 진입장벽 확보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과 안정적 재무구조 병행

동사는 3년간 2022년 342.2억 원, 2023년 406.3억 원, 2024년 32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매출 구조는 [조립공정 부품류]가 중심이지만, 2024년 이후 노칭 금형 비중이 높아지며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3년 영업이익률이 8.8%까지 개선되었으나, 2024년 1.3%로 하락하였다. 다만,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이 2023년 1.3%에서 2024년 4.2%로 상승해 수익성 둔화 국면에서도 기술개발 투자가 강화되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낮은 부채비율,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 업황 불황 속 매출 변동과 사업구조 재편

동사의 3년간 매출액은 2022년 342.2억 원에서 2023년 406.3억 원으로 18.8% 증가한 뒤, 2024년에는 323.2억 원으로 20.4% 감소하였다.

동사의 주요 제품 부문은 [조립공정 부품류], [2차전지 및 반도체용 기타], [금형류], [기타]로 구분된다. [조립공정 부품류]는 매출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3년간 매출액은 2022년 140.7억 원, 2023년 180.2억 원, 2024년 157.2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의 경우 전체 매출의 48.6%를 차지하였다. 반면 [2차전지 및 반도체용 기타]는 2022년 87.0억 원, 2023년 95.9억 원으로 증가 후 2024년 60.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금형류] 매출액은 2022년 16.5억 원, 2023년 12.5억 원, 2024년 20.8억 원으로 노칭 금형 수주 증가, 관련 특허 및 개발 성과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기타 제품] 매출은 2022년 98.0억 원, 2023년 117.7억 원, 2024년 85.1억 원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수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최근 3년간 수출 비중은 2022년 45.8%, 2023년 46.8%, 2024년 55.3%로 상승하였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해외 공장 설립 확대에 대응해 중국,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 거점을 확보한 결과로 파악된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20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모습이다. 전방 2차전지 업황의 영향이 크며, 주요 고객들의 국내외 설비투자 연기와 2차전지 시장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 장비용 주요 부품 수요가 감소한 점도 매출 감소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종합적으로, 동사의 매출 구조는 조립공정 부품과 금형, 그리고 해외 고객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투자 회복과 신규 금형 양산에 따른 매출 반등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수익성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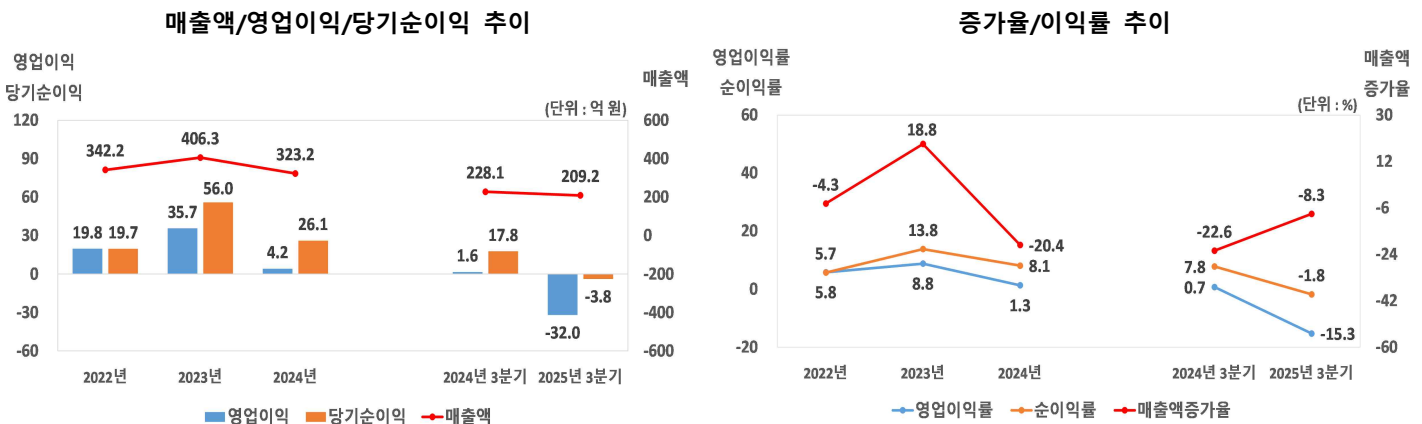
동사의 3년간 영업이익은 2022년 19.8억 원, 2023년 35.7억 원, 2024년 4.2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으며, 영업이익률도 5.8%, 8.8%, 1.3%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2022년 75.7%, 2023년 76.4% 수준에서 2024년 81.2%로 상승하였고, 판관비율도 2023년 14.8%에서 2024년 17.5%로 상승하였다. 2024년에는 판관비 항목 중 여비교통비 증가(2.3억 원→3.4억 원), 지급수수료 증가(5.7억 원→6.4억 원)가 두드러졌으며, 외주가공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147.4억 원, 2024년 97.2억 원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졌다. 한편, 연구개발비는 2022년 3.5억 원, 2023년 4.4억 원, 2024년 1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도 1.1%, 1.3%, 4.2%로 상승해 수익성 둔화 국면에서도 기술개발 투자가 강화되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9.7억 원, 2023년 56.0억 원, 2024년 26.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순이익률은 각각 5.7%, 13.8%, 8.1% 수준이었다. 2023년에는 금융수익 25.3억 원, 기타이익 4.6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4년에도 외화환산이익과 투자자산평가이익을 통해 금융수익 33.0억 원이 반영되며 영업이익 둔화를 일부 보완하였다.

2025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은 영업손실 32.0억 원, 당기순손실 3.8억 원을 기록하였다. 판관비율이 2024년 3분기 18.7%에서 2025년 3분기 21.8%로 증가하며 비용 부담이 커졌으나, 외화환산이익 5.6억 원, 투자자산처분이익 0.4억 원, 금융자산평가이익 22.9억 원과 같은 금융수익을 통해 손실 폭을 일부 경감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동사는 2023년까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었으나, 2024년 이후 전방시장 업황으로 일시적 변동을 나타냈다. 다만, 노칭 금형, 커터 시스템, 미국 현지 대응 등 핵심 품목의 매출이 증가하고, 원가율이 안정화될 경우 현재의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무차입 기조와 투자여력 갖춘 안정적 기반 마련

동사의 3년간 총자산은 2022년 675.1억 원, 2023년 715.0억 원, 2024년 718.3억 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유동비율은 2022년 843.2%, 2023년 1,029.2%, 2024년 956.8%로 높은 수준이었다.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3년간 2022년 72.9억 원, 2023년 95.3억 원, 2024년 92.1억 원으로 확보되었으며, 동사는 이러한 현금 재원을 바탕으로 유형자산 및 생산설비 취득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군포 본사와 생산설비, 해외법인 기반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형자산 규모는 2024년 182.7억 원이었으며, 전년도 176.6억 원 대비 3.3% 증가하였다.

부채총계는 2022년 124.1억 원에서 2023년 114.4억 원, 2024년 104.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 기준 동사는 차입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기타비유동금융부채와 리스부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2년 22.5%, 2023년 19.0%, 2024년 17.1%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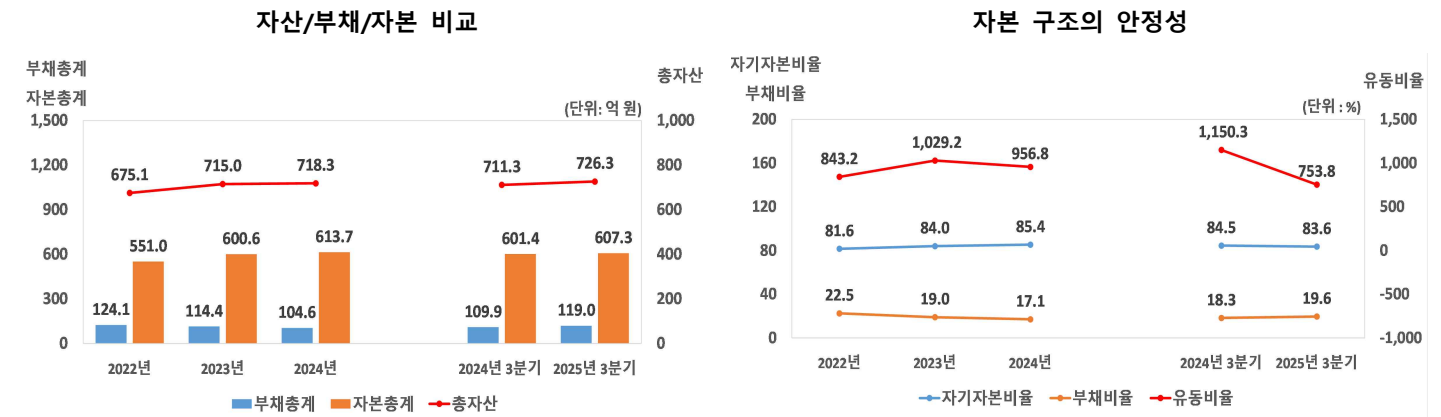
3년간 자본총계는 2022년 551.0억 원, 2023년 600.6억 원, 2024년 613.7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도 각각 81.6%, 84.0%, 85.4%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각각 12.2억 원, 17.7억 원의 자본 감소가 반영되었으나, 그럼에도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축적되며 자본총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이치와이티씨(148930)

동사는 수익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업황 회복과 신규 금형·해외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매출액	342.2	406.3	323.2	228.1	209.2
매출액증가율(%)	-4.3	18.8	-20.4	-22.6	-8.3
영업이익	19.8	35.7	4.2	1.6	-32.0
영업이익률(%)	5.8	8.8	1.3	0.7	-15.3
순이익	19.7	56.0	26.1	17.8	-3.8
순이익률(%)	5.7	13.8	8.1	7.8	-1.8
부채총계	124.1	114.4	104.6	109.9	119.0
자본총계	551.0	600.6	613.7	601.4	607.3
총자산	675.1	715.0	718.3	711.3	726.3
유동비율(%)	843.2	1,029.2	956.8	1,150.3	753.8
부채비율(%)	22.5	19.0	17.1	18.3	19.6
자기자본비율(%)	81.6	84.0	85.4	84.5	83.6
영업현금흐름	56.3	32.2	65.4	70.6	17.6
투자현금흐름	-298.6	13.8	-35.6	20.5	-33.0
재무현금흐름	274.1	-23.9	-35.2	-23.6	-6.6
기말현금	72.9	95.3	92.1	162.7	69.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단기 실적은 전방 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2024년 이후 실적 흐름은 전방 투자 재개 시점과 금형 매출 확대 속도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및 배터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 조정 영향으로 2024년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조립공정 부품류 부분의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 특히 조립공정 부품류는 동사의 핵심 매출원으로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정상화 및 투자 재개 시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영역 중 하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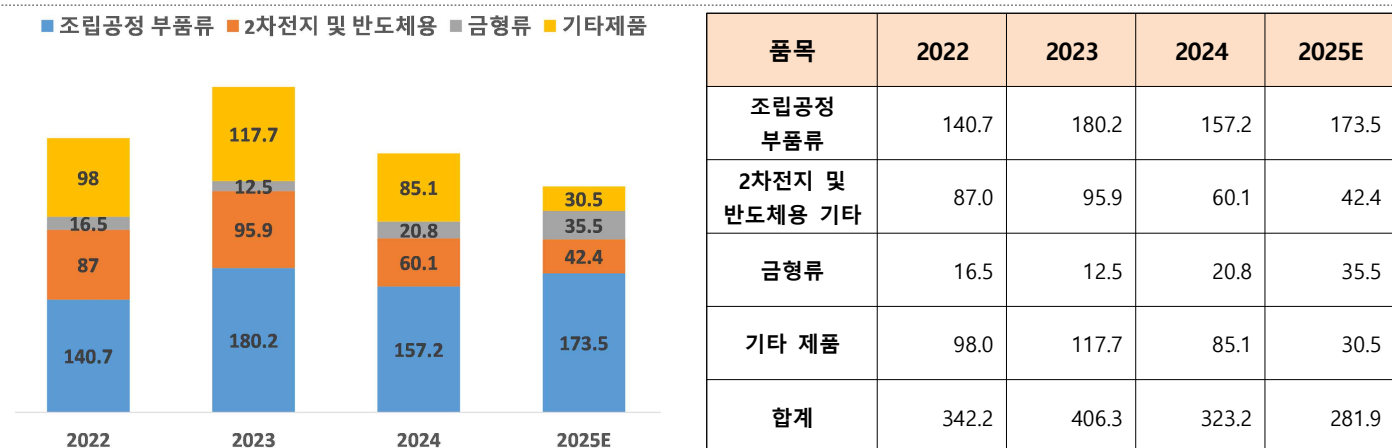
중기적으로 동사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전환을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조립공정 부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노칭 금형 등 고부가가치 금형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매출 확대가 아닌 수익성 개선 중심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금형 사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공정 핵심 영역에 적용되는 기술 기반 제품이라는 점에서 수주 확대와 양산 전개 여부에 따라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동사는 극판 및 조립공정 전반에 걸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사 공정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원통형(46시리즈), LFP 등 배터리 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부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정 대응력은 단순 설비 투자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정 고도화 및 수율 개선 중심의 시장 변화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동사는 중국,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지역에 생산 및 영업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해외 생산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향후 글로벌 수주 확대 및 고객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해외 법인을 통한 현지 대응 능력은 납기 경쟁력과 기술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9]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북미 현지화와 금형 중심 고부가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주력과 신사업의 확대 시도

동사는 북미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현지 수요에 대응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칭 금형 등 고부가가치 사업 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북미 현지화 가속

동사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북미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미국 내 생산·영업 거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오하이오 법인에 더해 테네시 지사 및 조지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북미 주요 배터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다거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 생산 거점 인근에서의 신속한 납기 대응과 기술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IRA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북미 고객사와의 거래 확대 및 안정적인 수주 기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 고객사 설비 투자 전략의 변동 가능성, 현지법인 설립에 수반되는 초기비용,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적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동사의 북미 거점 별 핵심 역할

구분	역할	보유 장비	주요 고객사
오하이오 (Ohio)	커터, 매거진, 지그 등	MCT, 연삭기	엘티엠셀즈(UC) 1공장
테네시 (Tennessee)	커터 재연마 등	MCT, 연삭기	엘티엠셀즈(UC) 2공장
조지아 (Georgia)	노칭금형, 커터 등	CNC 연삭기	현대차-LG엔솔 JV (HL-GA Company)

자료: 동사 IR자료(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노칭 금형 사업 강화

동사는 기존 초정밀 부품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노칭 금형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노칭 금형은 전극 탭 형상 및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부품으로 높은 기술 난이도와 진입장벽을 가지며, 최근 관련 특허 확보와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미 고객사 대상 노칭 금형 및 커터 시스템을 수주하며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사업이 동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 부품 공급에서 벗어나 공정 핵심 영역에서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림 11] 동사의 노칭 금형 사업 현황



자료: 동사 IR자료(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금배당 실시

동사는 상장 후 최초로 보통주 1주당 1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며, 총 배당금액은 약 1.46억 원 규모이다. 아울러 보유한 자사주 중 최대 25,000주를 활용한 임직원 보상을 추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상장 기업으로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에이치와이티씨(14893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 증권(2026.03.1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이치와이티씨	X	X	X